인니 하나은행, 현지정부에 코로나 진단키트 기부

인도네시아 하나은행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현지 보건부(Kemenkes)에 K방역 대표품목인 코로나19 진단키트 1만개를 기부했다고 6일 밝혔다. 박성호 인도네시아 하나은행 법인장(왼쪽 두번째), 트라완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왼쪽 네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장학생 430명 선발

소상공인자녀 특별장학금 지원도

우리금융그룹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이 다문화자녀 및 소상공인자녀의 학업증진과 특기개발 지원을 위해 장학생 430명을 선발한다고 6일 밝혔다.

재단은 다문화자녀 중 33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학업장학금과 특기장학금을 지원한다. 학업장학금은 각 재학생에게 제공되며, 초등학생 60만원, 중학생 100만원, 고등학생 200만원, 대학생 400만원이다. 특기장학금은 예체능, 어학, 기술 등의 특기나 자격증을 보유한 8~25세 다문화자녀에게 500만원씩 제공된다. 특기장학금은 졸업생과 학교밖 청소년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재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녀를 위한 특별장학금을 지원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aT, 코로나 피해 中企 '온라인 판촉전'

우체국쇼핑몰 '으랏차차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식품기업을 돕기 위해 '으랏차차 대한민국' 온라인 판촉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T는 지난 3월에도 우체국쇼핑몰에 중소식품기업들의 제품 판매를 지원해 1분기 매출 10억원을 달성했다. 이 같은 성공 기세를 몰아 지난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우체국쇼핑몰을 통해 2차 기획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3~4차 기획전은 옥션·지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와 제휴하는 등 확대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 참가기업은 농공상기업과 온라인 개학으로 대체 판로 확보가 어려운 학교급식 납품기업,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중소식품기업 등 약 80여 식품업체다.

/한용수 기자 hys@

애경산업, 디딤씨앗통장 장학생에 위생용품세트 지원

애경산업이 사단법인 희망을나누는사람들과 함께 가정의 달을 맞아 애경산업이 후원하는 '디딤씨앗통장' 장학생을 위해 위생용품세트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애경산업은 개인위생 관리를 위해 마스크, 손소독제, 샴푸 등이 포함된 약 1000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 200세트를 디딤씨앗통장 장학생인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200명에게 지급한다. /애경산업

최병민 회장, 제지자원진흥원 이사장 취임

〈깨끗한나라〉

깨끗한나라는 최병민 회장(사진)이 재단법인 한국제지자원진흥원 제4대 이사장에 취임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제지자원진흥원은 제지자원(폐지)의 안정적인 수급과 선진화된 유통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해 제지업계와 제지원료 업계, 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재단으로 현재 128개 제지·원료 기업이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

최병민 이사장은 폐지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단체표준인증' 취득 독려와 순환자원 사용 촉진을 위한 '순환자원인정제도' 준수 장려를 2020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준비할 때

윤 휘 종 의 잠시 쉼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기성 시스템에 준 충격이 만만치 않다. 코로나19로 아직도 우리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을 뿐 아니라 산업계와 공공·보건·의료·교육·금융 등 사회 전반에 준 파장이 예상보다 크다.

코로나19로 사람 간의 접촉은 급감했다. 인간에게 서로 만나지 말라는 것은 '사회적 사형선고'나 다름 없다. 그 결과 항공업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으며 운송·여행·서비스 등의 업종이 차례로 흔들렸다. 회사에서는 출근을 자제하는 바람에 시내 상권이 무너졌고 소상공인들은 '매출 제로'란 전대미문의 아픈 경험을 했다. 개학 연기로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농가가 타격을 받았으며 병원이 코로나19에 총력을 기울이는 사이 위중한 환자들은 발을 동동거릴 수밖에 없었다. 종교활동도 중지됐고 지방자치단체들의 각종 축제들이 취소됐다. 5일 개막한 프로야구는 사상 초유의 무관중 경기라는 기록을 쓰기도 했다.

그나마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완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는 조금씩 원상회복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

지난 100여일 동안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인간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을 강제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 동안 여러 이유로 규제 대상이 됐던 원격의료가 제도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온라인교육과 화상회의도 '해보니까 되더라'라는 평가를 남겼다. '언택트(비대면)'로 대표되는 신규 산업도 여기저기에서 싹을 틔우고 있다.

코로나19가 2·3차 산업혁명 시대의 약한 고리에 충격을 줬지만 4차 산업혁명의 발아를 위한 토양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1930년 '손자 세대를 위한 경제적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소론에서 "우리는 앞으로 '기술혁신으로 인한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이라는 표현을 자주 듣게 될 것이다. 이는 노동력을 절감하는 수단을 발견하는 것이 노동의 새로운 용처를 발견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탓에 발생하는 실업을 의미한다"고 서술했다. 새로운 기술이 전례 없는 속도로 생산성을 높이면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낮추고 있으며, 이는 또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인간의 노동량을 극적으로 감소시킨다는 예측이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 이후 케인스의 지적대로 엄청난 기술적 실업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인간의 자리를 로봇,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대체하면서 생산성은 더 높아지고 있지만 인간의 노동력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

이런 변화의 시대에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세상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 없이 이미 변하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따라가기는 해야 한다. 하지만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사회적 약자에게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라는 얘기가 배부른 소리로 들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코로나19 이후 사회가 붕괴되지 않도록 취약계층을 위한 재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새로운 산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준비해야 한다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업부장 yhj@metroseoul.co.kr

KT&G, 인니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지원

6300명 진단 가능한 1억 상당 물량

KT&G가 인도네시아 정부에 1억 원 상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를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KT&G는 인도네시아에서 해외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으로서 글로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위기상황 극복을 돕기 위해 이번 지원을 결정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1973년 수교를 시작해 다양한 산업 교류를 이어온 협력국으로, 지난해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타결하는 등 협력관계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의 급속 확산으로 진단키트, 방호복 등 기초 의료장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KT&G는 현지 상황을 돕기 위해 지난달 국내에서 진단키트를 확보해 인도네시아로 보냈으며, 5월 5일 KT&G 현지법인이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재청(BNPB)에 물품을 직접 전달했다.

KT&G가 지원한 물품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로 6300명의 감염 여부 진단이 가능한 물량이다. 인도네시아 의료현장 최일선에 즉시 공급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KT&G가 지난5일 인도네시아 정부에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지원했다.

김경동 KT&G 사회공헌실장은 "자사의 해외법인 소재국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긴급 구호물품 지원을 결정했다"며 "한국과 오랜 기간 우호 관계를 이어온 인도네시아 국민께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KT&G는 2018년 인도네시아에 지진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1억 원의 구호금을 긴급 지원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현지 교육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2012년부터 매년 해외봉사단을 파견하고 있으며, 2014년 한-인니 문화교류를 위해 자카르타에 '한국어학당'을 설립했다. 또한, 2017년 현지에 '상상유니브'를 설립해 대학생들의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 8월부터는 인니 청년들의 직업 역량 향상을 돕기 위해 커피 전문가 양성사업을 후원하고 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인사

◆**인사혁신처** ◇국장급 전보 △인사관리국장 김성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혁신성장본부장 이은호 △산업진흥본부장 박정순 △윤리감사실장 문주원 △기획조정실장 정시교 △가치경영실장 김정완 △혁신성장본부 기획6그룹장 박현철 △R&D사업본부 철도실장 박준우 △산업진흥본부 성과확산실장 김소연 △연구지원실장 최혜령

◆**KR투자증권** ◇채용 △전략금융본부 전무 허영홍

◆**한글과컴퓨터그룹** △그룹운영실장 김연수

부음

▲성경희씨 별세, 임성숙(자영업)·임남수(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임찬수(한국도로공사 제주지사장)씨 모친상 = 6일, 인천시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8일. ☎1600-4484

▲김지애씨 별세, 윤준호(전 KBS 해설위원실장)씨 배우자상 = 6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8일 오전 7시30분. ☎031-900-0444.